광주 대표 도서관 설계 공모 국제적 관심

61개국, 817개팀 최종 등록 세계적 건축가 심사위 참여 내년 2월 7일까지 작품 접수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 모에 이례적일 만큼 국제적 관심이 쏠렸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 국제 설계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 193개 팀을 포함해 모두 61개국, 817개팀이 최종 등록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국제 설계공모에 이처

럼 많은 참가자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 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2003년 백남준아트센터 공모전에 940 개팀,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 국제 공모 에 477개팀이 참가 신청을 한 것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국제 설계공모 참가 팀은 100개 팀 안팎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많은 팀이 참가 등 록을 한 것은 기존 공모 방식과 달리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 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명단을 사전공 개한 점이 흥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세계건축가연맹 회장인 토마스 보니에

르와 세계적인 도서관 국제설계공모 당선 으로 유명한 스노헤타 건축사무소의 로버 트 그린우드 등 유명 건축가 7명이 심사위 원으로 위촉됐다.

함인선 공모위원장은 "이같은 결과는 국내외 명망 있는 심사위원을 초대하고 창의적인 설계 지침으로 역량 있는 건축 가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했기 때문"이라고

국제 공모에서는 내년 2월 7일까지 작 품을 접수하고 같은 달 12일 심사를 거쳐 14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은 광주시가 후 대에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다운 명 품도시 건축정책인 '아트도시 광주' 일환 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표 도서관 국제공모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 으킨 것은 광주가 국제적으로 홍보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광주다운 명품도시 건축정책인 '아트도시 광주'를 통해 세계 적으로 자랑할 만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 도서관은 혐오 시설이었던 옛 상무 소각장 부지에 392억원을 들여 연 면적 1만1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최권일 기자 cki@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성과 보고

광주시 동구가 최근 동구 미로센터에서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사업 참여자 등 200여 명 은 올해 사업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전국 모든 은행 ATM 납부 가능

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18만2천512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 다. 12월 1일 현재 광주에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125cc 이 상 이륜차·건설기계가 납부 대상이다.

등록 차량 67만9천831대 중 올해 자동 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에서 제외했다.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이 1년 세액 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6월에 연세액 으로 부과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 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 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 기 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한 '오감만족 에듀팜 농부교실'이 지난 13일 성황리에 끝났다. '오감만족 에듀팜 농부교실'은 다육이 반려식물 심기, 토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치유 원예활 동과 우리밀 사랑 건강 쿠키 만들기를 통해 보고 맛보고 즐기며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교실이다.

광주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 실태가 일부 드러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겨 운영의 공공성과 투 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시행은 광주시의회가 최근 감사 실시의 근거인 '광주시 사회복지시 설 감사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회계, 계약 업무, 자산 관리 사항을 자체 감사할 수 있

광주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 다. 조례는 15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복지 감사팀을 신설하고 감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 이려 공인회계사·복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감사의 공정·독립·객관성 우려를 불식하 려 감사 실시 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반 영,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년 광주 도심 17곳에 도시 숲 조성

선정위 32곳 중 17곳 선정

광주시가 내년에 광주 도심 17곳에

도시 숲을 조성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0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 고 자치구에서 조사 후 제출한 사업 대 상지 32곳 중 17곳을 선정했다. 도심 열 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의 효과가 있는 도시 숲은 녹지 한평 늘리기, 담장 허물기, 보행자 도로 녹지 공간 조성, 도로변 가로 숲길 조성, 학 교 숲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정 위원회는 도시림 조성·관리 위 원회 위원 중 전문가・시민단체 위원으

로 구성됐으며,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 과성·사업규모의 적정성·사후관리 편 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녹지 한평 늘리기는 각화힐스테이 트 주변 등 9곳, 담장 허물기는 우산주 공 2차 아파트 등 2곳, 도로 녹지공간 조성은 원광대 한방병원~제2순환도 , 가로 숲길은 방림사거리~무등1 차 아파트 교차로, 학교 숲은 조선대 부속 중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도 시 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발생 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형 생활쓰레기 제로' 시민실천단 발대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활동

광주시가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형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시민실 천단 발대식을 갖는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라이브러리 파크 강의실에서 광주지속 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공단, YMCA 등 시민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열 고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시작한다.

시민실천단은 광주시와 마을공동체, 주 민동아리, 학교,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9 개 기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원 순환형 마을 모델 발굴, 시민단체·마을공 동체 간 정보 공유,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광주자원순화 시민실 천사례 발표, 2020년 시민실천 과제 간담 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발대식에 앞서 지난 11월28일부 터 이틀간 광주지역 자원순환 시민실천사 레 공유회와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국 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 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며 쓰레기 제로화로 나아가기 위 한 실질적 대책들을 발굴하는데 힘쓰겠 다"고 말했다.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 업무협약

4개 공공, 12개 민간기관 참여

광주 북구는 16일 22개 기관·단체와 '유 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광주동부교육지원청·북부 경찰서, 북부소방서 등 4개 공공기관과 유 니세프 한국위원회·북구 어린이집 연합회 등 6개 단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광주 지역본부 등 12개 민간기관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 ▲아동 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 참 여·권리 교육 ▲아동 안전 보호 ▲아동 권 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 친화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북구는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와 협력해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 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정병호 기자 jusbh@

서구, 규제개혁 평가 3년연속 우수지자체

2019년 규제개혁 자치구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구는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평 가지표, 인증제 진단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 되며, 포상금 3000만 원과 기관표창 등을 받게 됐다.

서구는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

당자와의 협업을 지속해왔으며, 소상공인 및 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 로사항을 반영한 과제발굴에 힘써왔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 고 제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i



